

2022년도 기획행정분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2. 12.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제 1 장 출장 개요

- 1. 출장개요 5
- 2. 출장 세부내용 6

제 2 장 출장지 현황

- 1. 다낭 10
- 2. 호치민 11

제 3 장 주요 출장 내용

- 1. 다낭시청 정보통신국 12
- 2. 다낭 종합병원 26
- 3.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31
- 4. 호치민 시의회 37
- 5. 한국 화장품 전문 판매장 43
- 6. 베트남 현지 관계자 간담회 45

제 4 장 시사점 및 활용방안

- 1.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확장 48
- 2. 의료기술 및 장비 지원 수출 확대 49
- 3. 지역 기업 해외진출 방향모색 50
- 4. 우호협력 도시 간 교류 활성화 51

제1장 출 장 개 요

1. 출장개요

- 출 장 지 : 베트남(다낭, 호치민)
- 출장기간 : 2022. 10. 23.(일) ~ 2022. 10. 28.(금) / 4박 6일
- 출장목적
 - 대구시와 자매도시인 다낭시와 우호협력도시인 호치민시 방문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 논의 및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 지속적 추진
 -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현황 및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현황 시찰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강화
 - 공공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 다낭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비교·시찰 및 의료기술 교류 확대 방안 연구
 - 대구 지역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기업 현황 파악을 위해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대구시 호치민 사무소 방문 및 재베트남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 베트남 MZ세대의 한국 화장품 수요 및 K-뷰티 소비시장 변화 파악을 위한 호치민 한국화장품 전문 판매장 방문

○ 보고서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 출장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기획행정위원회	위 원 장	임인환	
	위 원	박우근	
	위 원	김대현	
	위 원	이성오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팀 장	김영분	
	주 무 관	이희정	
	주 무 관	이민지	

2. 출장 세부내용

① 출장의 목적 및 배경

- 베트남은 인구수 9,895만명(세계 13위)의 인구 대국으로 아세안 최대 투자 대상국임. 특히 15세~34세까지의 젊은 층이 전체인구의 약 35%를 차지하여 젊은 소비층이 많아 향후 소비시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 중 교역 1위, 투자 1위의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이자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 2022년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현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그 협력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호치민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양 도시 간 전략적 파트너로서 우호 증진과 상호교류방안 및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구시 현지 기업지원 확대 방안 모색
- 발전과정 중에 있는 중소도시로서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및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통합도시재난관리센터와 동반된 정책의 추진 방향 등을 비교·분석 하여 대구시의 시민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방안에 참고
다낭 시청을 방문하여 최근 발전하고 있는 다낭시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다낭시 통합도시 재난관리센터 도시재난 대응력과 대구시 현황을 연계 비교하여 스마트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대구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공의료 시설 필요에 대한 요구가 있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원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다낭의료기관의 비교를 통해 개선사항을 찾고 양 국가 간 교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도모

베트남의 공공의료기관인 다낭종합병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시스템을 파악하고, 대구-베트남 간 연계 비교를 통한 인프라 및 제도발전방안 검토, 위드코로나에 대응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 국가 간의 협력 못지않게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교류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대구시와 베트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경제도시이자 대구시 우호협력도시인 호치민 시의회를 방문하여 호치민시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함.

②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기획행정위원회	위 원 장	임인환	• 국외 출장 총괄
2	"	위 원	박우근	• 다낭시 정보통신국 방문 총괄 • 스마트시티 관련 자료 수집
3	"	위 원	김대현	• 다낭 패밀리병원 방문 총괄 • 의료정책 관련 자료 수집
4	"	위 원	이성오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시의회 방문 총괄 • 진출기업 현황 관련 자료 수집
5	의회사무처	기획행정 팀 장	김영분	• 국외 출장 일정 및 자료 수집 지원 전반
6	"	주 무 관	이희정	• 일정 조정, 출장자 인솔 • 보건·위생 분야 자료수집 지원
7	"	주 무 관	이민지	• 기관 방문, 현장 시찰 업무 지원 • 방문 자료 및 방문 결과 정리

3] 출장일정

일 자	장 소	세 부 일 정	업 무 내 용
제1일차 (10.23.)	대 구 인천공항 다 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출발 ▪ 인천공항 ▪ 다낭공항 	이 동 : KE485편
제2일차 (10.24.)	다 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시청 정보통신국 방문 ▪ 다낭시청 관계자 간담회 	- 통합도시재난관리 센터 현황 파악
제3일차 (10.25.)	다 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 종합병원 	-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제4일차 (10.26.)	호 치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공항 ▪ 호치민공항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방문 ▪ 대구시 호치민 사무소 방문 ▪ 재베트남 대구경북 상공인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 호치민 이동 : VN413편 - 현지 진출기업 현황 파악
제5일차 (10.27.)	호 치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치민 시의회 방문 ▪ 한국 화장품 전문 판매장 견학 	- 시의회 간 상호협력 방안 논의
제6일차 (10.28.)	호 치 민 인천공항 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치민공항 ▪ 인천공항 ▪ 이동(인천→대구) 	이 동 : KE684편

제2장 출장지(베트남) 현황

① 국가 기본정보



- 국 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수 도 : 하노이
- 인 구 : 9,879만명 (2022년 기준)
- 면 적 : 330,951km² (한반도의 약 1.5배)
- 주요언어 : 베트남어(공용어), 문맹률 약 4% (15~60세 기준)
- 민 족 : 삌(Kinh)족 89% 화교 약 100만 명, 재외동포 약 350만 명
- 정치체제 : 일당제, 민주집중제, 단원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단일 국가
- 종 교 : 불교, 카톨릭, 카오다이교 등
- 경제규모 : 2021년 베트남 교역액은 사상 최고치인 6,685억불 기록,
무역수지 6년 연속 흑자 달성
베트남의 상위 교역국은 중국(1,659억불), 미국(1,116억불), 한국
(781억불) 순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2위 수입국, 3위 수출국,
제3위 교역국

② 다낭시 주요 현황

○ 인 구 : 114.1만

○ 면 적 : 1,285km²

○ 행정구역 : 6개 구, 2개 현으로 구성된 8개 행정단위가 있음

○ 인구밀도 : 885.6명/km²

○ 대구시와의 관계 : 2018.8.3. 자매도시 협정

○ 주요특성

- 다낭시는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776km, 호치민시에서 북쪽으로 961km 떨어져 있으며 후에성에 인접해 있음
- 도로, 철도, 해수로를 포함하여 남북으로 관통하는 교통축을 가지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면한 주요 항구도시로 베트남 중부지역의 최대 상업도시
- 베트남의 5개 직할시 중 하나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도시
- 한강(Song Han)을 사이에 두고 선짜반도와 시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베트남의 자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도시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 성 단위에서 가장 적은 11개의 사(社)를 보유하고 있음
- 다낭 인구의 약 87%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며, 연간 평균 도시 성장률은 3.5%에 이름.
- 다낭은 남중국해로부터 북상하는 태풍 피해에 자주 노출됨. 2006년에는 후에 근방의 태풍 상산의 상륙으로 다낭에서만 26명의 사망자를 냈고 가옥이 파괴되고,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졌으며 주요 도로가 침수되었음. 3년 후에 태풍 켓사나 (2009년)가 다낭에서 60 km 남쪽에 상륙하여, 또 다시 홍수를 일으킴. 켓사나로 다낭에서만 8명이 사망하고, 9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천 5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음.

③ 호치민시 주요 현황

○ 인 구 : 900만

○ 면 적 : 2,095km²

○ 행정구역 : 16군 1시 5현

○ 인구밀도 : 4,367명/km²

○ 대구시와의 관계 : 2015.5.29. 우호협력도시 협정

2016.10.10. 대구시 호치민 사무소 개소(주재관과견)

○ 주요특성

-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로 최대도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껀터, 다낭 5대 도시는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城舖直屬中央)의 지위에 있음(중앙 직할시이기 때문에 성(省)에는 포함되지 않음)
- 호치민시는 베트남 동남부와 메콩델타 지역 사이에 위치한 베트남 최대 상업 도시. 경제규모 및 교역규모가 베트남 내 최대로 경제수도이기도 함. 베트남의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가 밀집된 도시
- 원 이름은 사이공이었으나, 북베트남인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 1975년에 베트남 공화국을 점령하고 통일한 후 1976년 7월 2일을 기해 사이공과 그 교외인 자딘(Gia Định 嘉定) 성(省)을 합쳐 호찌민의 이름을 따서 바꿈
- 베트남에서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 하노이가 주재원 위주 교민사회 호찌민은 자영업 위주의 교민사회인 게 특징. 도시 남쪽 외곽에 위치한 푸미흥(Phú Mỹ Hưng) 이라는 도시에 코리안 타운이 형성되어 있음.

제3장 주요 출장 내용

1. 다낭시청 정보통신국

1 방문 개요

○ 방문일자 : '22. 10. 24.(월) 10:00

○ 관계자 : 정보통신국 직원

* 다낭 인프라건설사업관리공단, 유니텍 직원

○ 방문지 개요

- 설립연도 : 2006년 착공, 2014년 완성

- 위치 : 24Đường Trần Phú, Thạch Thang, Hải Châu,
Đà Nẵng

- 규모 : 지상 33층, 지하2층

※ 타워부는 일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고, 강한 바람에 유리
하도록 원형의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360도 조망이 가능
하여 도심 중앙에서 다낭시 전체를 볼 수 있음

- 2021년 예산 : 세입 1조 64억원 / 세출 1조 272억원

- 다낭시 정보통신국 :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
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 추진 중



○ 주요 연수내용

-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현황 파악

- 사업명 :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

사업기간 : 21. 11. ~ '25. 12.(4년간) / 사업예산 : 1,050만불

사업수행기관 : (주)유니텍컨소시엄(유니텍, 이지스, 쌍용정보통신, 유플러스아이티)

- 주요내용 : 다낭시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단일화된 재난신고번호와 경찰·소방
·공안·응급 등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마련

-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 진행 현황 브리핑

- PSC (다낭 공공 서비스 정보 센터)방문

2 연수 내용

1. 참석자 현황

○ 다낭시 정보통신국(3명)

Ông Nguyễn Quang Thanh(쩨응옥 탕잉) 부국장

Ông Thái Thanh Hải(타이 탄 하이) IT과장

Ông Lê Quang Mừng(레 팡 멩) IT과 주무관

○ 다낭시 인프라건설사업관리공단, 위니텍

* 인프라 건설 사업 관리 공단 직원 (3명)

: Bà Bui Ngoc Hung(부이 응옥 흥)기획입찰과장

Phạm Thị Bích Hiền (팜 티 빗 히엔) 기획입찰과 주문관

Ông Nguyễn Thanh Hoàng(응웬 탄 황)심사과 주무관

* 위니텍 직원(2명) : 왕동민 상무 외 1명 (사무수행기관)

2. 주요 내용

○ 베트남은 기후변화 취약국 6위 안에 드는 나라로, 다낭시는 태풍과 돌발 홍수 등 상습적인 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재해지역 현황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이 미흡하고, 모니터링과 정보 축적 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대구 지역 기업인 위니텍 등이 참여한 위니텍 컨소시엄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 하기 위한 재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사업수행기관인 위니텍 브리핑을 통해 진행 상황과 앞으로 남은 과제를 파악하고, 스마트도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

○ 다낭시는 베트남 ICT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시티 개발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다낭시 VISION2045를 통해 선정한 핵심

사업 5개 중 2개가 스마트시티와 ICT사업일 정도로 관련 산업발전과 투자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스마트시티 및 IT산업은 지역내 총생산(GRDP)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광업과 더불어 다낭을 대표하는 사업임.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한국기업과의 협력과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앞으로 의료, 교통 등 전 분야로 대구지역 ICT기업진출이 확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확인.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상 어려움 청취



- 다낭 현지 상황과 맞지 않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예로 베트남은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여 태풍 시 오토바이 고장이 많은 데 이를 대비한 재난 대응체계가 미흡.
-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소방 등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다낭시는 소방업무를 다낭 공안에서 담당하고 있어 긴급 신고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환경이 우리랑은 다름.

- 강수량이 많은 지역 특성상 배수시설 대책을 위한 강수 시스템 부서가 별도 배치되어 있어 특성화가 필요함.

○ PSC(다낭 공공서비스 정보센터) 방문



- 시민들에게 재난 경고를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인터넷 기반시설이 우리나라에 비해 안정적이지 않아 시스템 운영개선 필요. 5G통신망을 비롯한 인터넷 인프라 불균형이 심함.
- 다낭 주요 커뮤니티의 데이터 공유를 담당하는 기관인 1022센터 (대구의 두드리소와 일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아직 재난 신고번호가 단일화되지 않지만, 향후 신고번호 단일화를 통해 신고접수와 출동 지령 체계를 통합해 대구시 전자 정부 모델 활용 계획.

○ 사업의 보완을 위한 정보통신국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

1. 감시 카메라 -홍수 발생 시 전력망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홍수 감시 카메라는 태양광 배터리로 예비 전력을 제공 받아야 함.
2. 2D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보고서에 지도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해야 함. 지도 데이터 구축 비용을 예산에 추가하고 연간 지도 데이터 업데이트 비용을 센터 운영 비용 예산에 추가할 것을 요청함.
3. 3D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 3D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프로젝트의 자원 조건과 다낭시의 자원으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3D 지도는 구조 작업에 필수적인 건지 검토하여 필요가 없으면 3D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도록 할 것.
4. 113(경찰), 114(소방), 115(응급구조) 센터의 통화 수, 응답 시간, 차량배치 시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통합 대시보드(dashboard) 제공할 것을 요청. 대시보드를 통해 시 인민위원회와 유관 기관은 이런 센터가 시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음.
5. 주요 커뮤니티의 데이터 공유를 담당하는 기관은 1022센터 (공공서비스 정보센터)이며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은 정보통신국과 1022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및 다른 채널들이므로 이 플랫폼에는 1022센터가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 (예: 공유 웹 링크, zalo, SMS,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이 필요함.
6. 사업의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는 설명된 기능들 이외에 기술 모형과 콜센터의 역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함.

7. 안내방송 스피커 설치 : 현재 다낭시는 17개의 안내방송 스피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2개의 안내방송 스피커만 추가로 설치할 것을 제안. 한편, Nguyen Tat Thanh 해안선과 Son Tra 반도에는 해수욕장에 몇개의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지만 보고서에 제안되지 않았음. 안내방송 스피커 배치 위치 수를 추가 할 것을 요청함.

3. 다낭시 스마트프로젝트 운영계획

○ 주요 추진경과

- 지역기업 (주)광명테크에서 해외 정보화 컨설팅 추진 : '14. 07
·사업명 : 베트남(다낭시) 무인발급시스템 수출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 행안부 해외진출지원 사업 마스트플랜 수립 : '17. 03
- 베트남 다낭시 ODA 사업 요청(행정안전부) : '18년
- 외교부 ODA과제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수행 : '18년

○ 주요 추진성과

- 현지조사 (컨설팅 및 시스템 관련) : ' 22.02
- 현지 착수보고회 : ' 22.03
- 분석단계 워크숍 (한국 15명, 베트남 27명 참석) : ' 22.06
-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VKU(한-베트남 ICT대학) 협업
- 도시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컨설팅 제출 : ' 22.07
- 베트남 다낭 도시재난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제출
- 기자재 도입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 22.08
- 베트남 정부 사업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F/S) 완료 : ' 22.12
(예정)

○ 향후일정

- 정보시스템 개발 및 기자재 도입 : '22. 3Q ~ '23. 2Q
- 현지 중간보고회 : '23. 3Q
- 시스템 테스트 및 시범운영 도입 : '23. 3Q ~ '24. 4Q
- 현지 종료보고회 : '24. 3Q
- 시스템 안정화 지원 : '25. 1Q ~ '25. 4Q

○ 다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 베트남 정부는 2018년 8월 스마트시티 중장기 프로젝트 및 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리 결정문(950/QD-TTg)을 발표. 해당 결정문은 오는 2030년까지 하노이, 호치민, 다낭, 껀터를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및 메콩델타 지역을 잇는 스마트시티 체인 구축을 목표로 함
- 건설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획투자부 등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 기관까지 포함해 거의 행정조직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예정 (각 부처의 장관은 매년 11월 말, 총리실에 사업경과보고)
- 다낭은 2014년 베트남에서 최초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 다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 인민위원회가 'Developing Smarter City' 계획을 승인하며 본격 시작됨. 이후 Viettel, VNPT, FPT 등 베트남 내 유력 IT 기업들과 협력해 4개 분야(행정, 교통, 환경, 라이프)에 걸쳐 8개 시범사업을 추진(일부 사업 완료). 2016년 이 플랫폼을 다낭 국내 16개 시·도에 이전했고, 2020년 베트남 ICT 지수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개발 및 적용 준비 면에서 12년 연속 베트남 ICT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 중앙정부의 이번 중장기 계획에 다낭이 하노이, 호찌민, 껀터와 함께 스마트 시티 핵심도시로 지정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프로젝트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됨. 디지털 혁신, 정보 보안 및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베트남 내 상위 3개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
- 다낭시는 2018년 1월 행정, 경제, 환경, 라이프 등 6개 중점분야와 16개 세부분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추진체계(Smart City Architectural Framework)를 확정·발표했음. 아울러 12월에는 분야별로 2025년까지 추진할 총 53개, 약 3억6000만 달러 규모의 세부 과제를 다낭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함.
- 사업내용 : 사업 홍보 및 활성화 워크숍, 베트남 다낭 도시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컨설팅, 베트남 다낭 도시재난 대응전략수립 컨설팅, 도시재난관리 제도 현대화 (거버넌스 역량강화), 인력양성 (관리자, 전문인력, 사용자, 운영자), 긴급신고 통합관리 체계구축, 도시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 도시재난 데이터공유 플랫폼 설계, 도시재난 DB구축, 공간정보 DB구축, 재난관제상황실 구축 등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Da Nang ENSURE center) 서비스 개념도



다남시 목표서비스 구성도



출처: KOICA 사업 기본계획 대외용 자료

4. 대구시 - 다낭시 상호교류 활성화 논의

○ 대구-다낭 자매결연 추진배경

대구-다낭 양도시간 2004. 10. 21. 우호협력도시 체결. 우호협력도시 체결한 이후 양 도시는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교역이 확대되는 등 경제적인 상생 관계가 됨. 또한, 각종 문화, 스포츠 등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무원, 대학생 상호 교류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하여 자매결연이 상호 실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2018.8.3. 자매결연을 체결함

○ 기대효과 : ICT 및 첨단 기계 산업, 의료관광, 미래 자동차 및 에너지, 전자정부 및 ODA, 공무원 및 대학생 교류 등 선진정책 교류 등 양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실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자매결연 주요협정내용 : 대구광역시와 다낭시는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합의함. 경제, 문화·예술, 교육·학술,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도시의 발전을 도모.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시정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해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도약하는데 상호 협조하기로 함.

○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에 따른 우리 측 기대효과

- 전자정부 수출로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체 및 공간정보 산업체, 재난관련 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 한국의 우수한 도시재난시스템 표준화 모듈을 한국의 유·무상 원조사업과 연계하여 베트남 전역 및 주변국 정보통신 분야 및 재난안전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 확보 가능.
- 한국의 도시재난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 기업들과 센서 등 IoT 및 공간정보 등 융합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규 수출 상품 발굴 가능.
- 정보통신 기반의 스마트 도시재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베트남 주민의 안전확보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 향상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 다낭시 시스템 구축은 1991년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진행하는 통합 재난·재해 대응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대구지역 기업이 향후 다른 사업 분야로 확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대구시 - 다낭 교류 내용

일자	내 용
'04.10	대구-다낭 우호협력도시 체결
'05~'06	대구시 공무원(전배운) 다낭시 파견
'05.8.3~8	다낭시 대학생 1명 대구국제대학생축제 참가
'06.4~10	다낭시 공무원(트란 휴) 대구시 초청 행정연수 참가
'06.8~14	다낭시 대학생 2명 대구국제대학생축제 참가
'07.4~10	다낭시 공무원(Nga) 대구시 초청 행정연수 참가
'07.8.7~13	다낭시 대학생 3명 대구국제대학생축제 참가
'08.4~10	다낭시 공무원(트) 대구시 초청 행정연수 참가
'08.12	적십자대구지사 의료봉사단 다낭시 의료봉사활동
'09.5	세이프로드업체의 다낭시 도로차선규제봉 기증
'09.6	적십자대구지사 의료봉사단 다낭시 의료봉사활동
'09.6	시경찰청 대표단 다낭시 공안국 방문 및 이후 정기교류
'09.9	다낭시 당서기(응우옌 바 탄) 외 대표단 10명 대구시 방문
'14.4	다낭 국제교류담당자 대구시청 방문
'14.8.10~15	다낭시 대학생 11명 대구국제대학생캠프 참가
'14.11	다낭시 대외협력부과장 양 도시 간 교류협의를 위한 대구방문
'15.8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조재구 위원장) 등 11명 다낭시 방문 및 장학금 전달 (학생 15명), 시의회, High-Tech Park, 시 교통국 방문
'15.1.13	대구예총의 다낭예총 유무 문의 및 교류 희망 의사 전달
'15.2.3	다낭문학예술협회연합 소개 및 공식교류희망 서신 요청해움
'15.2.3	2016년도 대구시 국제행사 목록 제공 및 다낭시 국제행사정보 요청
'16.4.29~6.15	다낭시 공무원(KimLien) 대구시 행정 연수
'16.7.25~29	대구시 정보담당관실 재난관리시스템구축 ODA사업 협의차 다낭방문
'16.7	대구치맥페스티벌 해외자매도시의 날에 공무원(3) 및 기업인(3명) 참석 - 대구관광협회, 치맥조직위와 업무 협의

일자	내 용
'16.8.7~12	다낭시 대학생 5명 대구국제대학생캠프에 참가
'16.10.13~16	대구대표단(단장 시장) 다낭 시 방문 및 경제교류 협의
'16.10	다낭시장에게 시장님 감사서신 발송
'16.11.17~18	다낭비엘성형외과피부과 개원식, 다낭 대구의료관광홍보센터 개소
'16.12.22~24	다낭시 방문 및 관광설명회 개최, 대학, 우호도서관 건립 및 공무원 상호파견 업무 협의
'17.2.13~17	다낭시 해외합작병원 대구 방문
'17.2.~'18.2	대구시 공무원(곽재환) 다낭시 직무연수
'17.2.	제2회대한민국국제물주간 세계물도시포럼에 다낭시장 초청장 발송
'17.3.9~10	양 도시 직항노선 개설(티웨이) 협의차 대구시 공무원 실무단 3명 다낭 방문
'17.4.2	대구-다낭 직항노선 취항 시작
'17.4~10	다낭시 공무원(1명) K2H 행정연수프로그램 초청 및 참가
'17.5.10~13	대구시 의료관광홍보센터 다낭 개소식 및 의료기관 비즈니스 미팅 개최
'17.7.5	기획조정실장 등 다낭 방문 및 ODA 사업(스마트도시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및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협의
'17.9.7~9	우호도서관 건립 협의차 국제협력팀장 외 1 다낭 방문
'17.11.14~16	대구-다낭 우호 도서관 착공식 및 다낭시청 방문(시장 대표단)
'17.11.27~28	다낭시 공무원(Ms Nga Thi Phuong Nguyen) 지방행정연수원 고위간부워크숍 참석 중 대구시 방문(보건환경연구원, 의료허브조성과, 물산업과, 국제협력관실등)
'17.12.11~15	재난방지시스템 연수차 다낭시 공무원 대구시청 방문(행정부시장 면담, 시스템 견학)
'17.12.19~23	스마트도시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수립완료 보고회 및 기업 설명회 개최 차 기획조정실장 외 2명 다낭시 방문
'18.4.11~12	다낭시 외무국장(Lam Quang Minh) 등 다낭시장 대구 방문 사전 협의차 대구방문
'18.4.17~21	정보통신관의 다낭정보통신국에 파일럿시스템 운영교육 제공 및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18.5.9~11	대구시 대표단(행정부시장) 다낭 부시장 방문 및 TBC-다낭방송국 업무 협의 대구시 관광설명회 개최
'18.7.1~6	대구국제대학생캠프에 다낭 대학생(1명) 참가
'18.8.3	대구-다낭 자매결연 체결식(다낭 부시장 일행 대구 방문)
'18.8.16~20	한국청년지도자연협회대구와 다낭 VCCI 간 국제교류 협력
'18.8.21~23	문체국장 외 2 다낭 방문 및 양 도시 간 관광업무 협력
'18.11.4-9	대구소방서 다낭소방 및 재난안전시스템 실태 파악 및 업무 협의(4명)
'18.11.9-11	지자체 조세정책 협의(세정담당관실 1)

일자	내 용
'18.11.12-17	다낭시 정보통신국 및 홍수관리통제센터 방문(정보화담당관 1명)
'18.12.10-13	대구시 직원동호회 다낭 방문(18명)
'19.3.1-2	2019메디시티대구 해외나눔의료봉사 사전답사팀 현장조사차 다낭 방문
'19.3.	외교부-KOICA 다낭시 재난관리시스템 사업 수원국 협의(2월~3월)
'19.4.7~12	2019메디시티대구 해외나눔의료봉사단(62명 정도) 다낭 방문 및 의료봉사(다낭종합병원, 다낭패밀리병원, 다낭화푸보건소)
'19.4.23~25	대구시 공무원 노조(32명) 다낭시 방문 및 선진노사문화정착을 위한 연구(다낭시청, 소프트웨어파크, 대구-다낭북카페)
'19.5.12-13	다낭시 ODA사업 대상지 방문(국제통상과장 외 1)
'19.10.10-12	대구-다낭 우호도시체결 15주년 기념행사(대구시장 일행 다낭시 방문)
'19.10.29-31	대구-다낭 북카페 2호점 개소(대구 이글로타리 클럽 회원 30여명 다낭시 방문)
'19.11.25-12.1	다낭시 공무원 3명 대구시 초청 연수
'19.11	청소년과 (유소년) 캠프 참가 유관기관 확인요청
'20.1	민간 음악 교류 연주회 참가 협의 (1월)
'20.03	코로나19 관련 현황 대구시장 서신 발송(3월)
'20.07	코로나19 대구시 방역집 (영문본) 송부
'20.09	코로나19 대구시 방역집 (베트남어본) 송부
'20.09	행안부 「20년 개도국 공무원 지방행정과정」 선발 3명 중견관리자 선발
'21.02	대구시 직무훈련자 관련 사전협의 (철도시설과)
'21.11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 착수(정보화담당관)
'22.01	레 쥘 쥘 인민위원장 서신 접수(도시간 협력강화 기대, 2022 대구 국제우호도시포럼 참석 희망 등)
'21.03	대구경북상생 ODA관련 협의(연수생 선발)
'22.03	다낭시 외무국장 애도의 서신 접수(호찌민 사무소장 관련)
'22.03	자매우호도시 웹영상전 참가
'22.04	대구경북 상생 국제협력 지원사업 협의(연수생 선발)
'22.05	대구-다낭시 청소년 교류 협의(청소년과)
'22.05	2022 대구국제우호도시포럼 참석 대구 방문(다낭시 부시장 외 7인) 및 시장님 예방
'22.11	대구경북 상생 국제협력 지원사업 (베트남 교사 역량강화 대면 연수) 다낭시 참가 11명
'22. 12	베트남 다낭 PMC 고위급 초청연수(12.11~12.19)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

3 방문 사진



2. 다낭 종합병원

1] 방문 개요

○ 방문일자 : '22. 10. 25.(화) 10:00

○ 방문지 개요

- 설립 : 1945년
- 위치 : 124 Hải Phòng, Thạch Thang, Thành Phố Đà Nẵng
- 원장 : 레 득 난(Le Duc Nhan) 원장
- 다낭종합병원은 1945년 설립된 다낭병원에서 출발하였으며, 1997년 다낭시 보건부 산하 다낭병원이 되었음. 2003년 1월 공식적으로 1등급 병원으로 승격되었음
- 다낭시와 광남성의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며, Hue 의과대학 (Hue Medical Uni.), 군 의료시설(Military Medical Academy), TW2 의료전문대학(TW2 Medical College)의 실습기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외 원조를 활용하여 시설 및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교환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병원의 기반시설은 시 인민위원회(시청)의 투자와 많은 ODA기구들의 도움으로 현대적 병원으로 재건되었는데, 특히 1,5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지원이 큰 역할을 했음



○ 주요 연수내용

- 다낭종합병원 기본 시설 및 의료시설 견학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비교
-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지 상황 시찰

2 연수 내용

1. 기관 현황

○ 위 치 : 124 Hải Phòng, Thạch Thang, Thành Phố Đà Nẵng

○ 주요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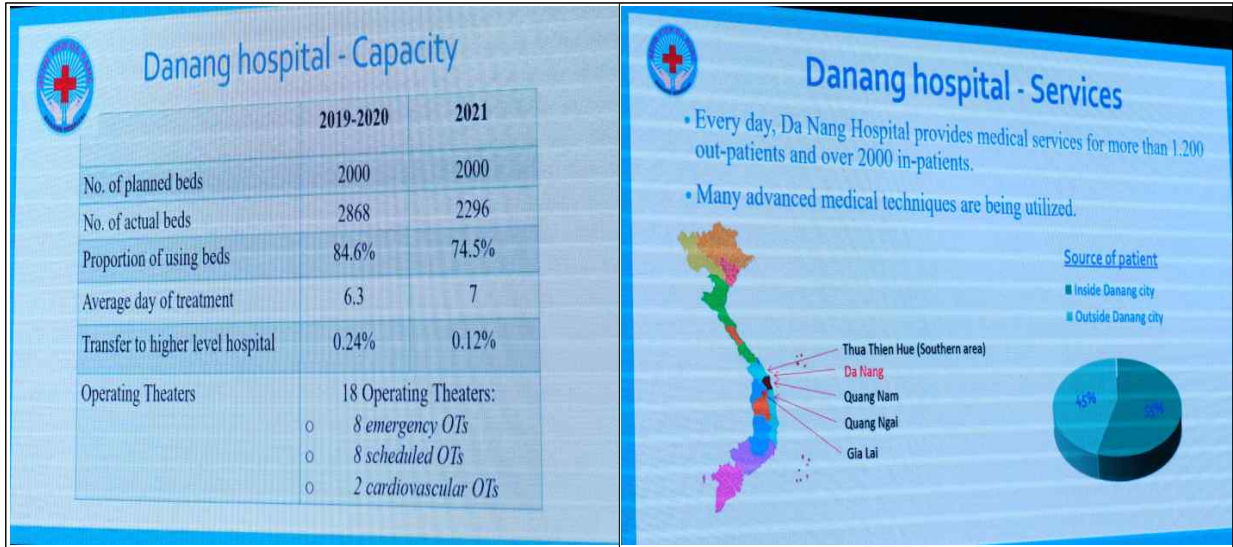
- * 칠곡경북대병원과 다낭종합병원은 2017년 의료 협력 교류, 외국인 환자송출, 의료진 연수, 해외 의료봉사 등에 대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 * 레득난 병원장이 2018년에 대구 방문하여 대구의료원, 칠곡경대병원, 의료기자제 생산공장 등을 방문 하였음
- * 베트남의 보건의료 체계는 중앙에서 지방까지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에 개혁을 시작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의료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음. 이는 강력한 로컬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전통 의료시스템의 유산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 * 2005년부터 신장 이식 수술을 시행했으며, 2006년부터 심장수술을 시행 해서 현재까지 약 500명 이상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시행 했으며, 난임시술은 2000년부터 운영되어 현재까지 500여명의 난임 가정에 도움을 주었음

2. 주요 내용

1) 자매도시 국립의료기관의 의료인프라 비교 시찰

- 다낭종합병원의 시설과 규모를 살펴보고(1,01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의료진 235명을 포함한 1,200명의 직원이 일 2천여명의 외래 환자의 진료를 봄)
- 다낭종합병은 7개의 지역에 후송 병원이 있고 45%의 환자는 다낭시 외부에서 방문하고 있음.

- 의료 수요나 베트남 발전 상황에 비해 아직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의료장비 등 수요가 많음.



2)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지 의료기관 실태 파악

- 다낭 종합병원은 향후 정부지원으로 4개센터(혈액센터, 국제건강센터, 노인의학 센터, 열대성 질병센터)를 확장 계획임.
- 한국과 같은 의료보험개념이 없고, 한국처럼 건강할 때 미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없어, 응급상황이나 질병이 발생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함.
- 2023년부터 의학진단센터를 개설 예정이며, 수술센터와, 신경외과 및 트라우마 센터를 개설할 예정임.



3) 의료협력교류 및 국제의료봉사활동 실천방안 논의

- 칠곡경북대학교와 의료 협력 교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해외의료봉사활동도 더 확대 계획임. 각 도시의 의료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료팀을 운영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 중.
- 다낭은 베트남 최대 관광도시로 여행객이 많아 외국인 환자수요가 있어 병원내에 국제전문 파트가 따로 있음. 한국인 교민과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의료장비가 필요함.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교류 3740 지구
Khu vực 3740 Rotary Quốc tế

한국-베트남 의료협력사업
hợp tác y tế giữa hai nước Việt Nam và Hàn Quốc

국립중앙의료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국립중앙의료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국립중앙의료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국립중앙의료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In the field of stem cell and organ transplant: TRI-service, Taiwan and Kitano hospital, Japan
- Partnership with Shiga University, Japan; Yonsei University, KOICA, KOFIH, Korea; Cooperation with medical center and organizations in the world: Germany, UK, Australia, Switzerland, Taiwan...
- TVD program with Mayo Clinic,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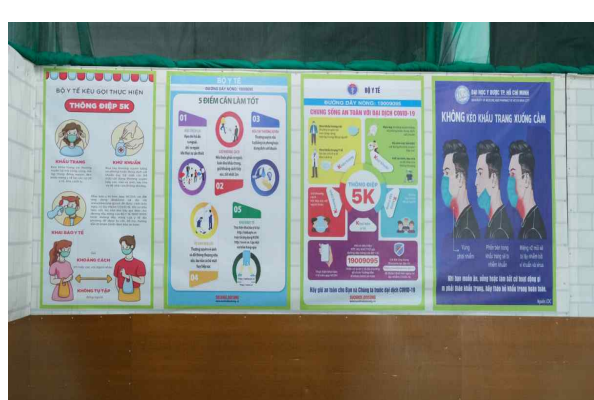


INTERNATIONAL DEPARTMENT

- 24/7 service, hotline: 1900575734
- Highly specialized physicians
- 3* standard quality patient room
- Guarantee insurance services
- English language support

PHÒNG KHÁM QUỐC TẾ
INTERNATIONAL DEPARTMENT

3 방문 사진



3.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2. 10. 26.(수) 14:00

○ 방문지 개요

- 위 치 : 7Floor, Diamond Plaza, 34 Le Duan Ave, District 1, Ho Chi Minh City
- 관 장 : 김관목 관장
- 직 원 : 현지 직원을 포함하여 총 42명의 직원이 근무
- 주요업무 : 투자진출, 지사화, 해외물류, GP등 마케팅, 무역사절단, 해외시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 개설연도 : 1992년 처음 개설. (128개 무역관 중 10번째 규모임)

○ 주요기능

-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근무시간 중 방문자에게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및 회계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변호사와 관세사가 소속되어 있어 원산지 증명, 세무, 노무 관련 분야 무료 상담이 가능함.
- 현재 지자체 파견 공무원은 경남과 부산시 2곳만 있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 지역도 근무 기간이 끝나면 연장계획은 없음.

○ 주요 연수내용

-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동향 파악 및 향후 투자 유망 분야 조사
- 진출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필요 분야 모색
- 호치민 대구사무소 방문 및 재베트남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 간담회

2 연수 내용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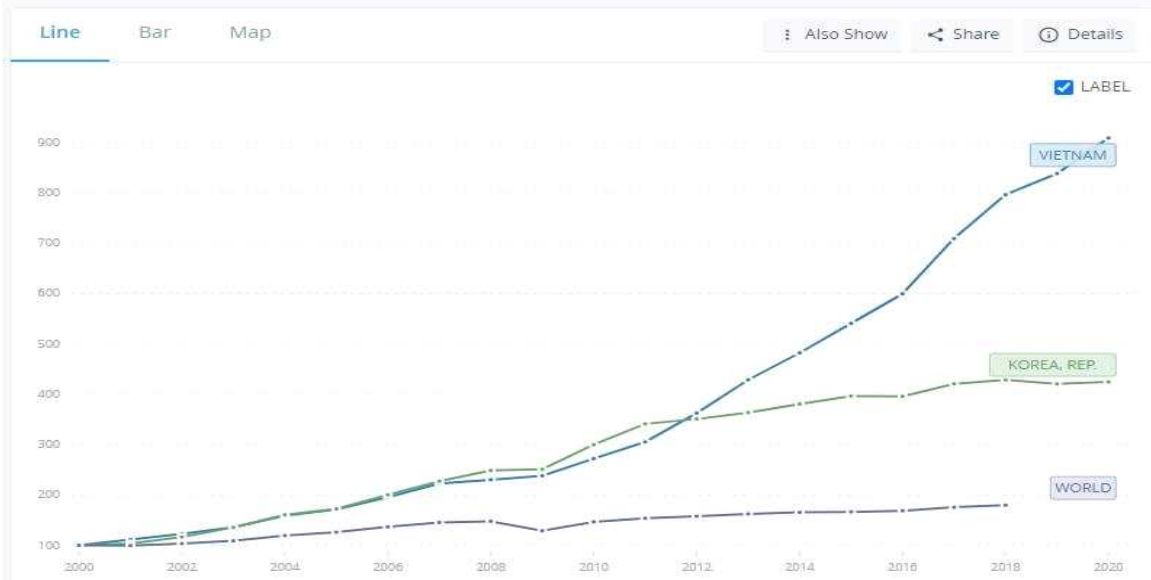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현황과 호치민 무역관의 주요 업무 파악
- 앞으로 성장 가능 영역이나 대구기업이 진출하면 유리한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입 품목과 비중 등 현지 베트남 경제 현황 분석
-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 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재베트남 상공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듣고 앞으로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확인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의 주요 업무와 현지에서의 근무 상황 등을 살펴 보고, 대구 기업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부분은 없는지 조사

○ 한-베 교역 동향 (19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교역규모 161배 성장)

Export volume index (2000 = 100) - Vietnam, Korea, Rep., Worl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Handbook of Statistics and data files,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License : CC BY-4.0



○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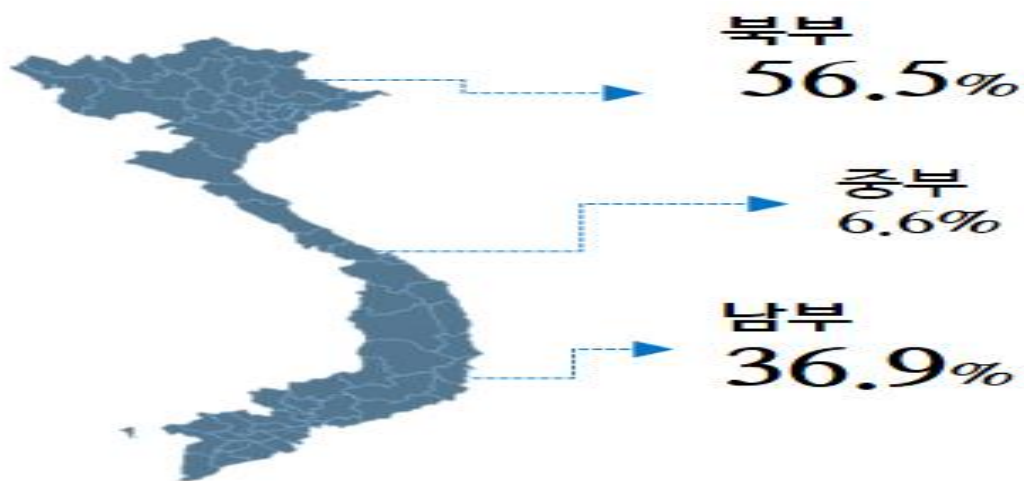
연 번	품목명 (MTI 4단위)	수출 금액 (USD백만)	전년대비 증감(%)	수입 금액 (USD백만)	전년대비 증감(%)
1	집적회로반도체	12,829	22.0	568	39.7
2	평판디스플레이	12,030	26.2	865	-15.0
3	무선통신기기부품	3,094	-5.0	3,060	-4.7
4	합성수지	2,415	49.5	28	64.7
5	인쇄회로	1,678	5.8	427	29.9
6	개별소자반도체	1,114	20.2	180	26.7
7	편직물	931	9.4	28	95.0
8	자동차부품	924	37.3	276	30.9
9	기타플라스틱제품	871	0.6	207	30.6
10	광학기기부품	733	-20.9	55	7.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 2022년 현재까지 베트남과 한국 교역

한국	베트남
1~9월 수입 : 5,004억 달러	1~9월 수입 : 2,653억 달러(17.8% ↑)
1~9월 수출 : 5,296억 달러	1~9월 수출 : 2,607억 달러(13.2% ↑)
1~9월 무역수지 : -292억 달러	1~9월 무역수지 : +46억 달러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FIA)

○ KOTRA 호치민무역관의 주요 업무 및 서비스 - 마케팅

연번	사업명	유료/무료	사업내용
1	지사화 사업	유료 (수출바우처)	해외지사가 없는 우리 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KOTRA의전담 직원이 대신하여 수행하며,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거래선 관리 등의 각종 마케팅 업무를 1년 간 지속 지원
2	해외시장 조사	유료 (30만원내외)	바이어 발굴및 해외시장 동향조사, 품목별 현지시장 조사등 고객의 필요 내용을 의뢰 받아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 (조사 서비스별로 비용 상이)
3	무역 사절단	유료 (지자체지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협회 등)과 협업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장단을 구성,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무역관의 지원을 통해 관심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진행
4	해외 전시회	유료 (부스비 등)	KOTRA에서 지정한 해외 주요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전시회 참여 및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함께 지원 (현재 베트남 내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미정)
5	중견글로벌 지원사업	유료 (수출바우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매년 초 선정, 국고예산 지원을 통해 매칭 펀드(1~2억원)를 구성하여 타겟 시장에서의집중 마케팅을 연간 지속 지원
6	해외물류 네트워크	유료 (매칭펀드)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통관, 배송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원 (물류 서비스 활용 비용은 국고예산과 기업 부담금을 매칭 펀드 형태로 구성하여 집행)
7	온·오프라인유통망 입점 지원	무료	국내기업 유망 소비재 제품의 베트남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망입점을 지원하며, 판촉전 등 연간 마케팅 행사를 통해 입점 후 현지 마케팅 및 홍보를 지원
8	수출인큐베이터	유료 (1~4년차등)	베트남 시장 진출 또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정착지원 서비스와 법률·회계 자문 등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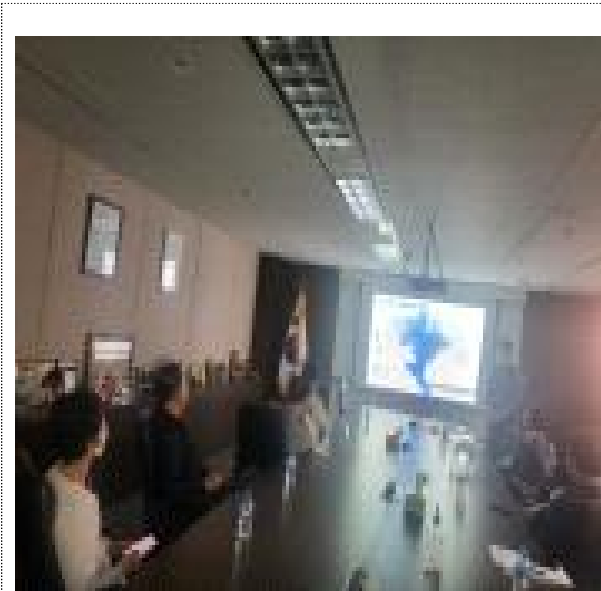
○ 대구기업의 베트남 진출 관련 리스크를 확인하고, 리턴기업 현황 파악

- 대구 중소기업들이 중국 리스크로 베트남 진출을 꺼리는 분위기인데 중국처럼 베트남도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지, 장기적인 전망은 어떤지 질의
(답변 : 3~4년 전 비슷한 이유로 기업들이 미얀마를 대체지로 투자하였다가 쿠데타로 철수함. 제 3국가 선택지가 없어서 섬유, 신발 등 생산업체는 리스크가 있어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대구지역 고용 창출이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리턴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출 기업 중 철수하는 기업은 있는지 질의 (답변 : 막상 돌아와도 자동화로 인해 고용 창출의 효과가 미미하고, 베트남은 노동조합이 있지만 국가에 통제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력 운영에는 베트남 현지가 유리한 점이 많아 리턴하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

○ 베트남 시장의 소비자 특성

- 2022년 1월 베트남 통계청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지 인구는 9,851만 명에 달했으며, 성별비는 여성 50.2%, 남성 49.8%였음. 중위 연령은 32.5세이며, 2020년 기준 베트남 내 만 9세 이하 인구는 약 15.6%, 만 20~39세 인구는 32.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러한 인구 특성과 이들의 왕성한 소비 활동은 베트남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베트남의 경제 개방·개혁 정책인 ‘도이머이 정책’ 이후에 태어난 1980~2000년대생 소비자들은 한국의 2030세대와 비슷한 소비패턴을 지녔으며, 이들은 베트남의 젊은 부모 세대이기도 하며 현지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거대한 축이 되고 있음. 도이머이 정책 이후 태어난 베트남 인구는 인터넷에 능숙하며,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임. 외국 브랜드에 호의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 직접 제품 정보를 찾아보는 적극성도 있음. 이 연령층이 베트남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베트남 소비시장에서 매우 잠재적인 계층으로 평가됨.
- 현재 베트남은 2025년까지 디지털 인프라 상위 30개국 진입을 목표로 5G 상용화, 광섬유 네트워크 보급 확대, 스마트폰의 상향 평준화 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현재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80% 이상이 후불현금결제(COD)로 이뤄지고 있음.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현금 선호도는 최근 베트남 내 전자결제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임. 같은 배경으로, 2021년 베트남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현지 전체 거래 건수 전자결제 비중을 최소 70%로 목표하여 은행 업계의 디지털화를 촉구하고 있음

3 방문 사진



4. 호치민 시의회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자 : '22. 10. 27.(목) 10:00

○ 방문지 개요

- 공식명칭 : 호치민 인민의회
- 위 치 : Số 86 Lê Thánh Tôn, Bến Nghé, Quận 1,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의 장 : 응웬 티 레(Nbuyen Thi Le)
1967년 출생, 호치민시 출신, 행정법석사, 법학박사
- 부 의 장 : 응우옌 반둥(Nguyễn VănDũng)
1972년 출생, 호치민시 출신 정치학 석사
- 총의원수 : 호치민시 10기 인민회의 (2021-2026), 93명 선출
- 임 기 : 5년
- 참고사항 : 베트남 국회는 최고인민의회로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 헌법 및 법률 제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은 5년마다 행해지는 전체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비공산 당원도 입후보할 수 있음. 국회의원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1석을 갖는 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음.



○ 주요 연수내용

- 호치민시 경제예산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호치민시 진출 대구기업에 대한 호치민시 지원 당부

2 연수 내용

1. 호치민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경제예산위원회(의장: 르 트엉 하이 히에우 Lê Trương Hải Hiếu)

문화사회부(의장: 까오탄빈 Cao Thanh Binh)

도시위원회(의장: 응우옌 티 탄 반 Nguyễn Thị Thanh Vân)

법제위원회(의장: 팜 꾸인 안 Phạm Quỳnh Anh)/



2. 주요내용

- 호치민 시의회 경제예산위원회 위원장 Lê Trương Hải Hiếu (르 트엉 하이 히에우), 부위원장 Hyunh Thanh Hunh(후잉 탄 흥),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Le Xuan Vien(레 쑤언 비엔),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Le Minh Duc(레 민 득) 및 호치민 인민위원회 산하 외무국, 내무국, 정보통신국, 기획투자국, 공상국 관계자 참석
- 대구시와 2015년부터 우호도시지만 양 의회 간 실질적인 교류는 이번이 처음. 호치민 시의회 르 트엉 하이 히에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건의하여 의회끼리 교류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호치민시는 인천, 부산과 자매도시로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대구는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함.
- 매년 호치민시에서 여러 외국 기업들과 간담회가 있는데 한국기업들과는 따로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한국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호치민시도 스마트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이공 하이테크파크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음. 한국 IT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아 한국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하기를 희망함.
-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국제교류를 정상화하고, 양 도시의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호치민 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행정 절차나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호치민시에서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당부.

3. 특이 사항 (호치민 국영방송보도)

호치민 시의회 방문이 HTV(호치민 국영방송)에서 10.29.(토) 방송되고, 방송영상이 호치민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게재됨.

 <p>#ThờisựHTV #HTVTintức #tinmóinhất BAN KINH TẾ - NGÂN SÁCH HĐND TP.HCM TIẾP ĐOÀN HÀN QUỐC HTV Tin Tức</p>	 <p>#ThờisựHTV #bantintra #HTVTintức BAN KINH TẾ - NGÂN SÁCH HĐND TP.HCM TIẾP ĐOÀN HÀN QUỐC HTV Tin Tức</p>
 <p>#ThờisựHTV #HTVTintức #tinmóinhất BAN KINH TẾ - NGÂN SÁCH HĐND TP.HCM TIẾP ĐOÀN HÀN QUỐC HTV Tin Tức</p>	 <p>#ThờisựHTV #bantintra #HTVTintức BAN KINH TẾ - NGÂN SÁCH HĐND TP.HCM TIẾP ĐOÀN HÀN QUỐC HTV Tin Tức</p>

-방송내용-

호치민시 인민의회 경제예산위원회는 호치민시를 방문 중인 임인환 위원장이 단장으로 이끄는 대한민국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방문단과 간담회를 가짐. 호치민시와 대구시는 과거 우호 교류 협정서를 체결했으며 호치민시 인민의회 경제예산 위원회는 양 도시의 두 개 위원회의 이번 간담회 행사를 통해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활동을 강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호치민시 인민의회 경제예산위원장은 상호 교류와 업무 협업의 내용으로 대구시의 경제, 보건, 기업지원 등에 대한 정책공유를 희망했음.

대구시 기획행정위원회 대표단도 앞으로 양측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받기를 요청함. 또한, 대표단은 호치민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한국기업들이 법적 문제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호치민시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 주기를 요청. 대구시는 원래 전자, 첨단기술, 의료관광 등에 강점이 있는데 이 분야는 양 도시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임.

③ 방문 사진





5. 호치민 한국 화장품 전문 판매장

1 방문 개요

○ 방문일자 : '22. 10. 27.(목) 14:00

○ 방문지 개요

- 공식명칭 : K-Beauty on

- 위치 : 115 Đường Nguyễn Văn Thương, Phường 25, Hồ Chí Minh

○ 주요기능

-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을 받아 운영중

- 베트남 호치민의 상권이 중심이자 가장 번화가인 'D2스트릿'에 위치한 한국 화장품 전용 홍보판매장

- 베트남 로컬 기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hasaki 점포 바로 옆에 홍보 판매장을 개설 메신저 ZALO 독점 계약권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원활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

- 현재까지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체는 20개 정도이고, 목표 참여업체는 30개며 SPA분야도 확대할 계획임.

2 연수 내용

○ 호치민 중심 상권지 화장품 전문 판매장 방문을 통해 K-뷰티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베트남 주 소비층인 MZ세대의 니즈 변화에 따른 판매전략 변화 및 수출시장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시 예산을 지원하여 9회째 개최하고 있는 대구 국제뷰티엑스포의 콘텐츠 점검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한 정보 수집.

- 베트남 화장품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은 4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큼 (베트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5위 화장품 수출 대상국임)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실적은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 (실적 : 91억 8천357만 달러)
- 한국 화장품의 인기 요인으로는 우수한 품질(자연 친화적 성분 및 재료), 다양한 제품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합리적인 가격, 한류스타 사용 제품을 이유로 꼽음.
- 2015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명한 한-베트남 FTA로 2021년부터 메이크업 제품은 기존 20%의 고관세율에서 특혜 관세율 5%로 수입이 가능 해져서 한-베트남 FTA 덕분에 가격 면에도 경쟁력이 있음.
- 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기간은 만 2년으로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예산에서 지원받고 있음. 한국 중소기업화장품의 홍보와 마케팅이 주요 목적이지만 개인 소비자의 구매 수요도 있어 판매도 하고 있음. 코로나를 겪고 나서 한국의 건강식품과 위생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중소기업 화장품을 비롯하여 홍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홍보와 판매도 추진 중임.
-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므로 중소화장품 해외 마케팅을 더 활발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 소비자의 한국에 대한 선호가 높은 만큼 한국의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베트남 화장품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서 하다 보면 한국 화장품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것임.



6. 베트남 현지 관계자와의 간담회

① 다낭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사업수행기관 (주)위니텍컨소시엄

- 일 시 : 22. 10. 24.(월) 12:00
- 장 소 : 냐항 마담란 4 Bach Dang St, Da Nang Vietnam
- 참석자 : 다낭시 정보통신국 직원 2명, 위니텍직원 2명



- 한국과는 환경과 사회기반시설이 다른 베트남 현지에서 스마트 통합 도시 재난 관리센터를 구축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듣고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짐.

② 대구광역시 호치민 사무소

- 일 시 : 22. 10. 26.(수) 17:00
- 장 소 : 9Floor, Diamond Plaza, 34 Le Duan Ave., District 1, Ho Chi Minh City
- 참석자 : 한중섭 호치민사무소 소장, 현지 직원 2명



- 호치민 대구사무소는 2016년에 상해사무소에 이어 2번째로 개소하였음. 사무실은 52㎡의 사무공간에 국제통상과 한중섭 사무관과 베트남 현지 직원 2명 총 3명이 함께 근무. 현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조사, 투자가 발굴 및 기업 유치 지원, 문화·관광, 국제교류 등의 역할 수행.

③ 호치민시 재베트남 대구경북 상공인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 일 시 : 22. 10. 26.(수) 18:30
- 장 소 : 경북궁 식당 52 Hai Bà Trưng, Bến Nghé, Quận 1, Thành phố Hồ Chí Minh (호치민시1군)
- 참석자 : 대경 상공인협의회곽성환 회장, 김계백 고문, 권택은 부회장, 오영훈 이사, 김태우 사무국장, 정웅규, 김근호 총무, 대구은행 호치민지점 진영훈 지점장



- 재 베트남 대구경북 상공인 협의회는 2013년 설립, 전체 회원은 248명(22.06 기준)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건설, 무역,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호치민시 한인 단체 중 대구·경북의 두터운 교민층을 기반으로 한 단체로 베트남 진출 지역기업인과 대구·경북사무소 간 상호 사업 소개 및 협력, 지역사회 봉사 등 상생협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현지 진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짐.

제4장 시사점 및 활용방안

①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확장

- 대구시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사업의 추진현황을 시찰해보니 다낭시의 우수한 ICT개발 여건과 발전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 다낭시를 시작으로 다른 도시에도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기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 도시재난시스템 표준화 모듈을 한국의 유·무상 원조사업과 연계하여 베트남 전역 및 주변국 정보통신 분야 및 재난 안전 관련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야할 것임.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재난 안전 분야 외에도 의료, 교통 등 범위를 넓혀 우리 민간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대구시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
- 2014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직접 투자국이지만, 최근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IT기술을 중심으로 한 한국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더 의미가 있음.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4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FDI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베트남이 앞으로 더욱 개방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 가능하며, 한국 기업이 투자할 영역이 더 넓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베트남의 경제 성장속도와 변화방향을 생각하면 한국의 투자도 기존의 저렴한 노동시장을 기반으로한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 이전형 투자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음.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우리기술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독자적 기술력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구시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 사업 수출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계획임.

② 의료기술 및 장비 지원 수출 확대

- 다낭종합병원은 2017년 경북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대구에 방문하여 공공의료원인 대구의료원, 의료기자재 생산공장 방문하는 등 한국의 선진 의료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어려운 수술이 필요한 한국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싱가포르나 태국 환자이송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이송회사와 협력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

- 베트남은 높은 인구 성장률과 소득 증가로 더 좋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 열대기후로 인한 열병 등 풍토병을 비롯하여 코로나처럼 예상치 못한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수요는 많으나, 현지 병원을 방문해 보니 아직 의료시설이 많이 낙후되어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였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에 우리 의료장비들과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출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장비 수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의료분야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인 만큼,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과 해외 의료봉사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과 지원을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만큼,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한류로 우리나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성형, 피부미용 의료관광객 유치에 더 집중할 필요성을 확인. 베트남은 건강검진이 보편적이지 않으니 건강검진을 특화하여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 생각함.

③ 지역 기업 해외진출 방향모색

- 베트남의 1인당 GDP는 3,694 달러로, 불과 10여년 전인 2011년 1,942 달러 대비 1.7배 증가 하였고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고급 제품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은 인터넷 보급 확대와 인터넷 사용 인구 증가,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소비 행태의 변화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인터넷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추세임. 인터넷을 통한 한국 드라마 흥행과 케이팝 열풍으로 한류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한국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패션, 전자제품, 화장품 등으로 모두 우리나라 상품들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들임. 베트남 메신저 ZALO(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 중 하나)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강점을 살려 라이브커머스 등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판매 방식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라 사료 됨.
- 베트남 곳곳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의 비교적 저가 로드샵 브랜드가 베트남에서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었음.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고 아직 잠재된 시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구 국제뷰티엑스포 행사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과 같은 글로벌 문화 · 쇼핑 행사에 대구기업의 상품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꾸준히 성장시켜야 할 것임.

④ 우호협력 도시 간 교류 활성화

-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경제 수도로 호치민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여러 국가들이 우호 관계를 맺고 투자를 하고 있음.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교류 확대가 필요.

-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로, 1992년 수교 첫째 교역규모 5억 달러에서 2021년 740억 달러로 150배가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으며 내년에는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베트남은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4대 교역 대상국이자 아세안 제1위 교역 대상국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3개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최고 수준의 대외협력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음. (2022.10.)

- 호치민 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교역규모가 증가 함에 따라 이중관세 방지협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고 관세 문제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당부함.

-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국제교류를 정상화하고 양 도시의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양 의회 간 실직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교류 의사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음.

- 호치민시 위원장도 대구시의회 방문 희망 의사를 밝혔고,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일회성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교류를 이어 나갈 필요성을 확인함.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